

한대문학에 나타난 도가사상

신주석*

<目 録>

1. 들어가는 말
2. 漢初의 시대환경
3. 獨尊儒術과 문학의 도구화
4. 한대문학에 끼친 道家의 영향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戰國時代 문학을 계승한 漢代文學의 개막은 중국문학이 이미 하나의 새로운 발전시대로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의 유학은 봉건 전제주의 통치체제의 형성과 확립에 따라 마침내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존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문학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시대상황에서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렇지만 한대 경제, 정치상의 여러 복잡한 원인과 유가의 편협한 공리주의 철학은 문학을 속박하고 순수문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도가 사상은 시종 유가와 경쟁하면서도 유가의 결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이 시대의 문학 발전에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도가 사상이 어떤 조건 아래서 한대문학에 영향을 끼쳤고 한대문학과 후대문학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고찰은 우리가 노장사상의 문학적 역할을 이해하는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학사나 중국 고대문화를 합리적으로 고찰하고 승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유익한 작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

2. 漢初의 시대환경

秦漢時期는 봉건전제체제의 확립, 농업 생산의 발전과 통일 제국의 형성으로 통치 권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계층은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이익과 미래의 항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통일된 사상으로 전국시대이후 혼돈스러웠던 百家爭鳴의 국면을 해소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진나라가 六國을 멸망시킨 후 진시황이 엄격한 법률체계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법가 학설을 채용하여 정권을 공고히 하자 춘추전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법가 이외의 백가학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법가사상의 지나친 信賞必罰의 원칙은 군주의 가혹하고 폭압적인 전제적 통치를 부추겼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을 통합하고, 제후들을 함병하여, 남면하여 황제라 칭하고, 온 천하를 다스렸던?”¹⁾ 강대한 봉건전제주의 진왕조는 무도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잔혹한 형벌로 폭정을 일삼아 마침내 썩은 나무가 쉽게 꺾이듯이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을 기회로 최초의 통일왕조는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진왕조가 멸망하고 한왕조가 건립된 초기에는 단지 曆法만 새롭게 바뀌었을 뿐 별다른 제도의 변환은 없었지만 가혹한 법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이어졌다. 이런 비판은 백가의 학설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실제로 한초 陰陽家, 儒家, 墨家, 名家, 法家, 道家 등 諸家は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장기간의 전란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민심을 안정시키고 만족할만한

1) 賈誼, 《新書·過秦上》(中華書局, 1981), p.18: “并海內, 兼諸侯, 南面稱帝, 以養四海”

경제 부흥을 이뤄야했던 새 왕조의 지배세력은 특별히 黃老 학설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史書의 기록은 여러 곳에서 보인다:

孝惠, 高后 통치시기에 세상은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왕과 대신들은 모두 無爲를 하고자했다. ……천하가 안정되고 태평하여 형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은 농사에만 전념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했다.²⁾

孝惠, 高后 통치시기에 백성들은 가혹한 세금에서 벗어났고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고 노부모를 봉양하며 산다. 蕭何와 曹參이 宰相이 되었을 때, 無爲를 보강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간섭하지도 폐를 끼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부하였고 형벌을 거의 쓰지 않았다.³⁾

한초 통치자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피하지 않으면서도 천하가 자연스럽게 다스려지게 하는 이른바 ‘無爲而治’의 정책을 채택한 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간섭하거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모든 일에 의도적으로 지나친 인위를 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게 하려는(無爲而無不爲)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책은 큰 혼란과 대 정변 후에 사회경제가 스스로 조정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방침이었다. 孝惠, 高后 시기부터 文帝, 景帝 시기까지 도가학설이 제시한 ‘자유방임’ 정책의 실시로 “백성들은 안팎의 요역이 없어져서 농사를 지으며 휴식할 수 있게 되었고⁴⁾, 사회 경제는 몇 십 년 동안 스스로의 조정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의 물자가 풍부해져 곡식 열 말에 10여 전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으며 밥 짓는 연기가 만 리에 펼쳐지게 되었고⁵⁾, “홍수나 가뭄도 없었고 백성들은 모두 자급자족이 가능하였다. 각 군과 현의 곡식 창고는 꼭 차 있었고, 정부 창고에는 많은 재화가 보관되어 있어⁶⁾ 활기차게 번영,

2) 《漢書·高后紀贊》：“孝惠, 高后之時, 海內得離戰國之苦, 君臣俱欲無爲, ……而天下晏然, 刑罰罕用, 民務稼穡, 衣食滋殖.”
 3) 《漢書·刑法志》：“當孝惠, 高后時, 百姓新免毒振, 人欲長幼養老, 蕭, 曹爲相, 填以無爲, 從民之欲而不憂亂, 是以衣食滋殖, 刑罰用稀.”
 4) 《史記·律書》：“百姓無內外之繇, 得息肩于田畝.”
 5) 《史記·律書》：“天下殷富, 粟至十餘錢, 鳴鷄吠狗, 煙火萬里.”
 6) 《史記·平準書》：“非遇水旱之災, 民則人給家足, 都鄙陳庚皆滿, 而府庫餘貨財.”

발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롯된 학술 사상 상의 자유롭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는 한초 문학사조의 형성과 문학 창작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劉安의 屈原 작품에 대한 수준 높은 평가와 司馬遷의 發憤 著書인 《史記》가 있었고 賈誼, 淮南小山, 枚乘 등은 그들만의 독특한 견해로 진지하게 감정을 토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량 있는 산문과 사부를 창작했다. 이로 볼 때, 당시 사상적으로 자유롭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는 문학의 발전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3. 獨尊儒術과 문학의 도구화

한초의 사상적으로 자유롭고 활기차던 국면은 진왕조 멸망 후부터 한무제 즉위까지로 국한된 것이었고 백가쟁명 시대 자유분방했던 사상의 여음과 메아리에 불과 했을 뿐 제가 학설이 다시 흥성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文景之治”의 회복기를 거쳐 武帝시대에 이르러 봉건경제가 한층 더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게 되자, 봉건제도는 전면적인 法典化를 요구했고 이미 이룩한 성취에 대한 歌功頌德도 필요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절대 권력의 통치자는 폭넓고 심도 있는 비교와 검토를 거친 후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침내 유학을 국학으로 결정했다.

유학이 한무제에 의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정립된 것은 봉건주의 정통 유가의 완성을 상징한다. 이 정통 유학은 군주의 통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신적인 효험함을 덧씌웠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고 구속하였다. 동시에 일련의 봉건전제 종법체제와 통치 질서의 윤리정치 사상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문화 방면으로도 잠식을 시작했고 문학도 윤리 정치의 직접적인 실용 도구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현상은 선진문학을 총괄하는데서 뿐만 아니라 현실 문학의 창작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詩經》은 선진시대에 출현한 최초의 방대한 시가 총집으로 서정적인 예술 성취를 이루어 불멸의 문학사적 족적을 남겼다. 이런 서정시편 중에서 특히 國風과 小雅의 작가들은 이미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주체의식을 갖춘 시인들이었다. 그들은 상상과 정감이 풍부한 비유 수법을 창조해 섬세하게 운용하였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을 소리 내어 읊어 그 시대 다양한 계층의 실제 생활의 모습과 현실 생활의 체험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또한, 그들 삶에 투영된 불합리에 대한 반항과 불만, 이상과 염원,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등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무제이후 오로지 유학만이 독존의 지위를 누렸던 풍조 속에서 행해졌던 《詩經》에 대한 연구는 완전히 봉건 통치계층의 이익과 필요에서 출발하여 왜곡된 견강부회식 해석과 塗飾으로 “부부 관계를 바로 잡고, 효도와 공경을 이루며, 인륜을 두텁게 하여, 교화를 아름답게 하는”⁷⁾ 도구로 삼아 이미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춘 문학을 재차 정치적으로 예속하였다. 문학을 윤리 정치에 종속시키는 방법으로 《詩經》에 대한 연구를 노골적으로 이용하였다. 유가사상은 편협한 실용적 공리주의를 기본 틀로 삼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문학을 속박하고 침해하고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독존의 지위에 있던 유가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사상문화정책은 《詩經》뿐만 아니라 《楚辭》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詩經》을 이어서 출현한 屈原은 오랜 세월 견줄만한 대상이 없을 만큼 내용과 형식이 뛰어난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시가사상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였다. 웅장한 서정시편인 〈離騷〉에서 시인은 울분과 원망이 넘쳐나는 심오하고 치열한 감정으로 부패와 암흑에 휩싸인 정치 현실을 증오하면서, 맑고 깨끗한 사회를 추구한 ‘한 인격체로서의 열정’을 거침없이 노래하였다. 작가는 이 長詩에서 생동적이고 기묘한 초현실적인 현상을 적절히 묘사하여 신화적인 내용을 환상적으로 운용하였고, 상하 간에 치열한 사상적 대립 속에서 부각된 여러 가지 복잡한 모순관계를 비난하면서도 “기이한 것을 채택하면서 그 정확성을 잃지 않고, 향기로운 꽃

7) 《毛詩序》：“經夫婦，成孝敬，厚人倫，美教化。”

을 감상하면서 그 열매를 잃지 않는”⁸⁾ 낭만주의 풍격을 뚜렷하게 나타내 보였다. 바로 이처럼 명리에 초연한 개체인격의 정립과 낭만적인 상상력의 유기적인 결합은 〈이소〉의 문학적 가치를 드높였고 중국 고대 서정시의 찬란한 전범이 되었다. 그러나 유학이 지존의 지위를 차지한 시대에 굴원의 개체인격과 그 작품 중에 표출된 비판 정신과 낭만주의 예술 색채는 도리어 揚雄과 班固로 대표되는 유가사상의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유가의 윤리정치 원칙에 근거하여 작품에 나타난 이른바 “여러 차례 懷王을 책망하고”(數責懷王), “재능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露才揚己), “성내고 원망하며 용서하지 않았다”(忿懣不容) 등의 몇몇 과실을 핑계 삼아 굴원의 세속에 타협하지 않는 개체인격과 감정을 격정적으로 그려낸 독특한 예술색채에 대해 거침없는 힐난을 가했다. 동시에 굴원 작품의 기이하고 환상적인 표현과 내용이 유가 경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낭만주의 정신과 그 기교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후에 王逸이 비록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굴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굴원 작품의 가치와 한대문학에 대한 공헌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그도 굴원 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전을 숭상하고 仁義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原道를 추구하는 정통 유가 관념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굴원을 긍정했던 것은 단지 “〈離騷〉의 문장은 《五經》에 의탁하여 뜻을 세운 것이다”⁹⁾라고 여겼던 부분뿐이고, 격정적인 감정을 서정적으로 토로한 〈離騷〉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유가 詩教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고, 유가 사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인식상의 한계성을 확연히 나타내 보였다. 유학이 국학으로 제정된 시대에 조성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상적 분위기를 타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유학이 지존의 지위를 차지한 시대에 통치자에 대한 歌功頌德은 자연스럽게 시대정신이 되었다. 漢賦가 위정자의 공적과 은덕을 칭송하는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낸 것은 당시의 경제, 정치적인 배경에 상당한 원인이 있지만 유학이 지존의 위치를 차지한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司馬相如, 王褒, 班固 등이 주도했던 화려한 大賦 속에는 禮教가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主旨에는 “천자로부터

8) 劉勰, 范文瀾注《文心雕龍注》, (開明書局, 1989), p.167: “酌奇而不失其真, 玩華而不墜其實.”

9) 王逸, 《離騷章句序》: “〈離騷〉之文, 依托《五經》以立義焉.”

받은 은덕을 드높이고 충효를 다하기 위한 것이며¹⁰⁾, “군신간의 義를 밝히고 제후의 예절을 바르게 하는 것¹¹⁾이라는 의식이 깃들어 있다. 또한 통치자를 위한 가공 송덕의 작품 속에는 항상 “大漢은 천명을 받았고”, “하늘과 사람이 화답해야 황제의 덕행을 빛나게 할 수 있다¹²⁾는 神學 의식과 ‘天人感應’ 사상이 충만해있었다. 이런 부류의 辭賦는 한무제 때부터 東漢 安帝에 이르는 200년간 대량으로 출현하여 한대문학의 ‘주류’와 ‘정통’이 되었다. 이런 문학적 흐름은 모두 무제가 “백가를 물리치고 오로지 유가의 학술만을 존중함”(罷黜百家, 獨尊儒術) 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통치자로부터 정통지위를 부여받은 유가 사상은 정치사상과 문예 영역 등 다방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대 흐름을 주도하였다.

4. 한대문학에 끼친 道家의 영향

한대 400여 년 동안 유가 사상이 문학 영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유가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보완 관계에 있던 도가 사상도 한대문학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작품수로 보자면 유가가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치고 후대 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작품들은 문학 창작상으로는 문학 비평 상으로는 도가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서안시기, 劉安을 대표로 하는 《淮南子》 일파는 한무제가 즉위하고 유가와 도가가 기존의 지위를 놓고 마지막 일전을 버릴 때 도가 일파의 사상을 대표하였다. 유안의 굴원 작품에 대한 평가는 후에 유가 사상에서 비롯된 반고 일파의 편향적 해석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離騷傳》에서는 경전과 전혀 상관없는 屈賦를 〈風〉, 〈雅〉의 지위까지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國風〉은 진한 애정을 읊었으

10) 費振剛等, 《全漢賦》, (北京大學出版社, 1993), p.273 〈兩都賦序〉: “宜上德而盡忠孝.”

11) 위의 책, p.186 〈上林賦〉: “明君臣之義, 正諸侯之禮.”

12) 위의 책, p.271 〈西都賦〉: “大漢受命”, “天人合應, 以發皇明.”

나 지나치지 않았고, 〈小雅〉는 원망하여 비방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았는데, 〈離騷〉같은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했다”¹³⁾고 인식하였고, 애뜻한 연정을 신화처럼 묘사한 부분과 거침없는 비판정신이 교묘하게 결합한 특색을 높이 평가하였다. 세속에 휘둘리지 않은 굴원의 고매한 인품을 동경하고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더러움 속에서 벗어나, 세속의 밖으로 헤쳐 나와서 이리저리 떠돌아 깨닫하여 진흙이 묻어도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지조를 미루어 보건대, 그야말로 日月과 더불어 빛을 다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⁴⁾라고 칭송하였다. 유안은 왜 屈賦의 가치를 발견하고 굴원에게 이처럼 숭고한 평가를 한 것일까? 만약 《淮南子》 일과가 도가를 추앙하고 유가를 축출하려고 한 것과 사마천이 《離騷傳》 중의 주요 논점을 후에 “是非에 대한 견해가 성인과 매우 어긋났고, 大道를 논함에 黃老가 먼저이고 《六經》은 나중”¹⁵⁾이라고 인식하고 이것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것과 결부시켜 보면 전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유안과 사마천이 굴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그들이 겪은 인생 역경과 진보적인 문학사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철학적,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에 유가와 도가가 지존의 지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굴원은 유가나 도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유, 도가 사이에 그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가 이처럼 천양지차일 수 있을까? 정통 유가 입장에서 볼 때 굴부에 나타난 비판정신과 독자적이고 세속에 초연한 개체 인격 그리고 기이하고 환상적인 언어 기교에서 보이는 낭만주의 예술 풍격은 확실히 유가 경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굴원의 작품 세계는 경전을 추앙하고 인의를 숭상하는 온유둔후한 詩教 주장 및 “괴이한 힘과 어지러운 일, 귀신에 관한 것은 말씀하지 않았다”(不語怪力亂神)는 유가의 가르침과도 근본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러나 ‘自然’을 강조하고 현실에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도가 사상은 굴원 작품 속에 나타난 특징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 《莊子》와 〈離騷〉는 본디부터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았

13) 《史記·屈原賈生列傳》：“《國風》好色而不淫，《小雅》怨諷而不亂，若《離騷》者，可謂兼之矣。”

14) 《史記·屈原賈生列傳》：“蟬蛻于濁穢之中，以浮游塵埃之外，不獲世之滋埃，嶮然泥而不滓，推此志也，雖與日月爭光可也。”

15) 《漢書·司馬遷傳贊》：“是非頗謬於聖人，論大道則先黃老而後六經”

다. 葉適은 “莊子は 당시에 마음속에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해 일부러 狂言을 일삼고, 평생 진흙탕 속에 살면서 뜻을 의탁하였고”, “두 사람이 저술한 책을 보면 상당히 기이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단어를 선택하는데 있어 황당하고 넓고 큰 것과 변화와 환상을 추구한 것이 서로 아주 비슷한 면이 있다”¹⁶⁾고 하였다. 《莊子》와 〈離騷〉 사이에 이처럼 ‘매우 유사한 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유가를 축출하고 도가를 독존의 지위에 올리려다 한무제의 박해를 받은 유안이 崑崙의 〈離騷〉를 높이 평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학 창작상으로 볼 때 賈誼의 작품은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弔屈原賦〉는 崑崙에 의탁하여 자신의 슬픔과 원망을 토로하고 스스로의 사상 감정을 사실대로 자유롭게 표현한 서정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도가 사상과 인생철학의 이치를 명확히 밝히고 무한한 애상과 북받치는 울분의 정서를 심오하게 내포하고 있는 〈鵬鳥賦〉에 대해서는 특수한 형식을 갖춘 훌륭한 서정 佳作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던가?

정묘년	單闕之歲兮
4월 초여름	四月孟夏
경자일 해질 무렵	庚子日斜兮
부영이가 나의 집에 날아왔네.	鵬集予舍
방석 가장자리에 앉으니	止于坐隅兮
그 모습이 무척 한가롭구나!	貌甚閑暇
이상한 새가 날아드니	異物來萃兮
난 그 까닭이 기이하구나!	私怪其故
책을 펼쳐 점을 쳐 보니	發書占之兮
점괘가 그 길흉을 알려주네.	讖言其度
“들 새가 방으로 들어오니	曰野鳥入室兮
주인이 나갈 것이다.”	主人將去
부영이에게 묻거늘	請問于鵬兮
“나는 어디로 가겠는가?	予去何之
길한 징조라면 내게 알려주고	吉乎告我

16) 葉適, 《水心別集》, (中華書局, 1976), p.87: “莊子不得志于當世, 而放意于狂言, 澣濁一世而思以寄之”, “二子所著之書, 用心恢奇, 逞辭荒誕, 其宏逸變幻, 亦有相類.”

흉한 징조라면 그 재앙을 말해다오.
 땅에 묻힐 나이를 헤아려
 그 시기를 내게 알려다오.”
 부엉이가 이에 탄식하고
 머리를 들고 날개를 펼친다.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
 마음으로써 대답을 청하도다.

兇言其災
 淹速之度兮
 語予其期
 鵬乃歎息
 舉首奮翼
 口不能言
 請對以臆

저 천지가 화로라면
 조물주는 장인이다.
 음양의 조화가 솟이라면
 만물은 거기서 나온 구리이다.
 모이고 흩어지고 줄고 늘고 하는 것에
 어찌 일정한 법칙이 있겠는가.
 천 번 변하고 만 번 바뀔에
 궁극의 한계란 없는 것이라네.
 홀연히 사람이 되었다 해서
 어찌 삶에 연연하리!
 다시 변하여 다른 사물이 되더라도
 또 무엇을 애써 근심하리!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이기적이어서
 남을 천시하고 나를 귀하다고 한다.
 통달한 사람은 넓게 보고
 만물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탐욕스런 자는 재물을 위하여 죽고
 열사는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권세를 뽑내는 자는 권세 때문에 죽고
 평범한 사람은 삶에만 매달린다.
 이익에 현혹된 궁색한 무리는
 이리저리 분주하도다.
 대인은 사물에 굽히지 않고
 수많은 변화를 만나도 한결같다.
 어리석은 인사는 세속에 묶이어
 죄인같이 자기를 속박하도다.
 후덕한 자는 만사에 초연하고
 오직 도와 함께 한다.

且夫天地爲鑪兮
 造化爲工
 陰陽爲炭兮
 萬物爲銅
 合散消息兮
 安有常則
 千變萬化兮
 未始有極
 忽然爲人兮
 何足控搏
 化爲異物兮
 又何足患
 小智自私兮
 賤彼貴我
 達人大觀兮
 物無不可
 貪夫殉財兮
 烈士殉名
 誇者死權兮
 品庶每生
 怵迫之徒兮
 或趨西東
 大人不曲兮
 意變齊同
 愚士系俗兮
 窘若囚拘
 至人遺物兮
 獨與道息

많은 사람들은 미혹에 빠져	衆人惑惑兮
애증을 가슴에 쌓는다.	好惡積億
진실한 자는 담백하여	真人恬漠兮
오직 도와 함께 한다.	獨與道息
.....

賈誼는 작품 속에서 문답체의 형식으로 아름답게 울리는 악기 소리처럼 곱고 낭랑한 사부언어로 도가사상과 인생철학을 설교하였다. 清代 何焯은 “이 부는 모두가 원래 도가의 언어로 노장의 논설을 많이 사용하였다”¹⁷⁾고 했는데 표면적으로 살펴봐도 그렇다. 그러나 가의는 결코 도가 철학의 해설을 위해 이 작품을 쓴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주체하기 어려운 슬픔과 원망, 울분의 정서를 달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노장 철학에 의지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다. 작가는 도가의 논설에 의탁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 역경을 작품 속에 융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哲理賦에서 평범한 도덕론의 느낌은 전혀 감지할 수 없고,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포용성과 내실 있는 역량을 통해 작가의 개성과 감정이 사부 속에서 줄곧 약동하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다.

“화와 복이 꼬아진 새끼줄과 어떻게 다르겠는가? 운명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니,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¹⁸⁾ 생각이 원대하고 식견이 높으며 계획이 주도면밀하고 고매한 선경지명으로 오직 한왕조의 번영을 위해 동분서주한 걸출한 인물이었던 가의는 수구관료집단에게 “낙양 출신의 인재는 나이가 어리고 학문이 미숙한지라 전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려 하고 모든 일을 문란하게 한다”¹⁹⁾라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長沙로 좌천되었다. 이런 역경 속에서 가의의 마음은 점점 원망과 울분으로 가득 찼고, 그의 처지는 더욱 참담해져 철학적인 탐색으로 심리적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가의는 당시 봉건사회가 연출한 비극적, 사회적, 계층적 원인을 제대로 인식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단지 사유하는 방법으로써 자신의 비극적인 처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래서 黃老사상이 유행하던 시대에

17) 何焯, 《義門讀書記》(中華書局, 1987), p.74: “此賦皆原本道家之言, 多用老莊緒論.”
 18) 〈鵬鳥賦〉: “夫禍之與福兮, 何異糾纏. 命不可說兮, 叔知其極.”
 19) 《史記·屈原賈生列傳》: “洛陽之人, 年少初學, 專欲擅權, 紛亂諸事.”

그는 도가철학을 더욱 자연스럽게 탐색하고 운용하여 시대와 화해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중국 봉건사회에서 가의의 비극은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서도 가슴에 품은 큰 뜻을 펼 기회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불우한 봉건사대부의 전형이었다. 중국 봉건사대부는 그들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유가에서 도가로 전향하고 부귀공명과 세속의 명리로부터 초연해진다. 이 때 노장의 인생철학은 그들의 사상이 선택의 기로에서 치열하게 충돌할 때 심적인 위안을 삼기에 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현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였다. 이것을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든 소극적인 행위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의 규율적인 현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가의의 철리부는 후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사대부 문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서한 시기 경제, 정치 형세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서 통치 계층은 처음엔 黃老之學을 제창하다가 결국은 유가만을 지존으로 추앙하는 결단을 내렸다. 東漢에 이르자 사상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讖緯와 儒書를 서로 끌어다 붙이고 억지로 맞춰서 經學을 더욱더 진부하고 번잡하고 황당하게 만들었다. 유가사상은 서한 무제 이후 지존의 위치에서 이단에 대한 공격을 멈추어 본 적이 없이 없었지만 사회가 날로 혼탁해져 현실 정치가 부패하고 각종 모순이 격화되고 충돌함에 따라서 마침내 “《五經》을 배격하고 〈風〉과 〈雅〉가 버려지는”²⁰⁾ 사회 풍조까지 생겨났다.

이런 풍조는 일반적으로 반전통적인 도가사상에 의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도가학설이 한초의 사상논쟁 영역에서 일찍이 생명력 강한 이론으로 잘 뿌리내렸기 때문에 아주 간명하게 정통 유가사상에 대항할 수 있었고, 한편론 도가의 비판 정신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이 당시 경직되고 도식화된 유가에 대해 강렬하고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었다. 학술 사상적으로 항상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대립적 관계에 있는 유가와 도가의 모습은 사회 풍조의 변혁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張衡의 〈思玄賦〉, 〈歸

20) 《後漢書·仲長統傳》：“叛散五經，滅棄風雅”

田賦)와 趙壹의 〈刺世嫉邪賦〉의 출현과 한말 ‘사람에 대한 자각’을 노래한 抒情詩歌인 〈古詩十九首〉는 사상적인 내용을 함축해서 교묘하게 숨기거나 혹은 전면 에 나타내 보임으로써 도가의 깊은 채취를 느낄 수 있게 하였고 “《五經》을 배격 하고 〈風〉과 〈雅〉가 버려지는” 시대 흐름을 조성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王充이 한대 정통문학인 大賦에 대해 비평하고 화려하며 가식적인 문장을 배 격하고 자연 본성의 미를 귀하게 여기는 문학사상을 주창한 것은 전적으로 도가의 반전통 정신에 의거하여 노장의 가식을 혐오하고 본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학 발전의 흐름에서 보자면 부는 본래 초사에서 확장 발전한 것으로 한초 사부 형성기 때 賈誼, 淮南小山, 枚乘 등의 작품은 아직 騷體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사회의 병폐를 훈계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개인의 감회와 울분을 토로한 賦들은 마치 초사의 유지를 그대로 받든 것 같았다. 그러나 한무제 즉위 후에 어용 문인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 감정을 가공하는 사부를 대량으 로 제작하였고, 한부를 통치자를 위해 가공송덕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 이런 현상은 통치자의 필요와 제창이 있었기도 했지만 많은 작가들이 부를 지어 바치고 자신의 부귀공명을 이루길 원했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그리 생동적이지 못했던 大賦는 “많은 유생들이 명리를 다투어 작가가 술이 끊는 것 같았고”²¹⁾, 분분한 의론 속에 서로 간에 모방을 겨루고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했으며 쓸데없는 문장의 수식 에만 집중함으로써 깊이와 진정성이 부족한 형식주의 문학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던 揚雄이나 班固 등이 시가 형식이나 비유법을 채용해서 적절한 충고와 완곡한 풍유의 主旨를 갖추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모범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권고 하고 충고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²²⁾ 이런 상황에서 유가의 경전을 존승하고 교화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한부에 요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 부를 가식과 사치가 충만한 쪽으로 치우치게 했고 정곡을 찌르는 풍자를 불가능하 게 하였다.

21) 《後漢書·蔡邕傳》：“諸生競利，作者鼎沸”

22) 劉勰, 范文瀾注《文心雕龍注》, (開明書局, 1989), p.82: “無貴風軌, 莫益勸戒”

한대에 있어서 단지 왕충이 제기한 허위와 가식을 배격하고 마음의 진실을 귀하게 여기는 문학 사상이 이론상으로 한부의 폐단을 평정하고 일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왕충의 사상은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 뚜렷한 이단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는 孔·孟 학설 중의 오류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했고, 老子를 순수한 현인이라 칭하며 도가의 이론에 의지하고 도가의 천지자연의 도리를 중시하는 사상에 입각하여 天人感應, 陰陽鐵緯의 儒教神學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학 이론상으로도 가식을 싫어하고 본질을 귀중하게 여기는 도가사상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荀子의 사상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글을 다듬고 말을 꾸며 특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고”²³⁾ 화려한 수식을 중시하는 정통문학에 대해 지나친 가식을 배격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귀중하다고 역설하였다.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왕충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문구의 지나친 수식에만 의존하는 화려한 가식적 아름다움과 서로 대립하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숭상하고 억지로 높이고 맞추려고 하지 않는”²⁴⁾ 사실미, 자연미, 질박미라고 여겼다. 이런 아름다움은 “허위를 물리치고 진실을 보전하려는”(喪其僞而存定其眞) 사실적인 아름다움이고 “허망한 것이 진실보다 두드러지는”(虛妄顯于眞) 화려하고 거짓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는 “글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은 글로 나타낸다”²⁵⁾고 여기고, 문장은 진실을 존중해야 하며 작가는 진실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왕충의 “허위를 물리치고 진실을 보전하려는” 이론에는 개성미를 중시하는 작가관이 함축되어 있다. 진실이란 “각자 천부 받은 성질로 스스로의 장점을 삼는 것”²⁶⁾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당시 시대 환경으로 볼 때 상당히 독특한 점이 있다. 그는 예술 창작상에서 작가는 반드시 자신의 선명한 창작 개성이 있어야지 옛 것을 계승하고 모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외모를 수식하여 억지로 유사해지려고 하면 본래의 형체를

23) 王充, 《論衡·對作》, (中華書局, 1990), p.127 : “調文飾辭, 爲奇偉之觀”

24) 위의 책, p.152: “貴是而不務華”, “尙然而不高合”

25) 위의 책, p.224: “文由胸中而出, 心以文爲表”

26) 위의 책, p.173: “各以所稟, 自爲佳好”

상실하고, 문사를 꾸며 비슷해지려고 힘쓰면 본래의 뜻을 잃게 된다. 못 사람들의 자식은 모두 그 부모가 다르고, 다른 부류의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서로 반드시 비슷한 것은 아니다. …… 미인의 얼굴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슬픈 가락은 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모두 귀를 기쁘게 한다.”²⁷⁾ 이것이 바로 그가 이론상으로부터 문장의 창조성을 귀히 여기고 치밀하고 풍부한 계발성의 가치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허위를 배척하고 진실한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기고 문장의 창조성을 중시한 왕충의 주장은 당시 유가 경학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가공송덕을 주관하고 모방을 숭상하며 수식을 중시하는 문학 풍조와는 확연히 대립적이었다. 당시 여러 복잡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론과 주장은 합당한 중시를 받지 못했고, 위진 시대에 이르러서도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해 기세가 등등했던 玄學思潮에 의해 소외당했지만 동한 후기와 위진 시대 문학발전의 추세 속에서 진리의 본성을 예견하고 마음의 진실과 정신적 품격의 중요성을 강조해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그의 미학과 문학 사상이 위진시대 이후 새로운 이론의 선도자 역할을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동한 중기 이후 각종 모순이 발전하고 나날이 사회가 암울해지고 현실 정치가 부패해짐에 따라 일반 지식인의 사상 또한 시대의 흐름을 좇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사부 창작상에도 반영되어 부풍에 일대 변환을 가져와 정치 환경을 풍자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원망하고 자연 경물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출현하였다. 형식상에서도 화려한 미사여구와 지나친 과장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한 짧지만 힘이 있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한부 전환기 때 主旨在 참신하고 자신의 포부를 진지하게 토로한 몇몇 작품들은 이미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張衡은 〈思玄賦〉에서 “묵묵히 無爲로써 뜻을 모으고, 仁義에 구속 받지 아니한다. 집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면, 멀리 가서 고생할

27) 위의 책, p.173: “飾貌以強類者失形, 調辭以務似者失情. 百夫之子, 不同父母, 殊類而生, 不必相似 ……美色不同面, 皆佳于目, 悲音不共聲, 皆快于耳”

필요가 뭐 있는가?”²⁸⁾라고 읊조리며 마음속에 품었던 뜻을 이루지 못한 소회를 의탁하고 유가와 도가 사이에서 배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의 〈歸田賦〉는 대부가 서정소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의가 있는 작품으로 산림 생활의 그윽한 정취를 상상하면서 노령으로 은퇴해서 전원에 귀의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감흥을 통해 작가의 관직생활에 대한 혐오를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장형은 어두운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용이 못에서 노래하고, 호랑이는 산에서 포효한다. 우러르니 새잡는 명주 끈이 날고, 고개 숙여 가는 세월을 낚는”²⁹⁾ 자유롭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했는데 이것은 바로 도가의 “인적 드문 시골로 들어가 넓은 들에 살면서, 한가로운 곳에서 고기나 낚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려는”³⁰⁾ 인생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소극적인 인생관은 바로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가 부패한 시대 상황의 산물이었다. 선진 시기부터 진, 한초를 거쳐 “한왕조가 위험에 빠진 가운데 왕망이 왕위를 찬탈한”³¹⁾ 시대까지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속에 은둔하며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隱居志士들이 적지 않게 출현하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隱逸思想을 승화시켜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은일문학의 효시가 된 작품은 바로 〈歸田賦〉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언어가 평이하고 主旨가 참신한 抒情短賦로 한부에 넘쳐흐르는 생기를 가져다주었고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한부가 일대 전환을 하는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대 은일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大賦가 抒情小賦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趙壹의 〈刺世嫉邪賦〉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의미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동한 말기 “아부 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커지는데, 정직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라진다. 권세가에게 아침하는 사람들이, 정색하며 무리지어 줄서네. 허리 굽혀 명리를 좇고, 세력가를 박수치며 칭송하네. 고달파서 그런 세속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재앙을 부르네.”³²⁾라고 하며 암울하고

28) 張衡, 〈思立賦〉: “默無爲以凝志兮, 與仁義乎逍遙, 不出戶而知天下兮, 何必歷遠以助勞。”

29) 張衡, 〈思立賦〉: “龍吟方澤, 虎嘯山丘, 仰飛織繳, 俯釣長流”

30) 莊子, 《莊子·刻意篇》, 中華書局, 1981, p.227: “就藪澤, 處閑曠, 釣魚閑處, 無爲而已矣”

31) 《後漢書·逸民傳》: “漢室中微, 王莽篡位”

32) 趙壹, 〈刺世嫉邪賦〉: “佞諂日熾, 剛克消亡, 舐痔結綳, 正色徒行, 嫗嫗名執, 拍撫豪強, 偃蹇反俗, 立致

혼란한 사회현실과 정치상황을 격렬하게 비판하였고 춘추시대 이래의 모든 봉건 사회의 질곡을 대담하게 힐책하고 백성의 삶을 헤아리기 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부귀공명에만 집착하는 봉건 통치계층의 탐욕스럽고 추악한 본성을 날카롭게 폭로하였다. 〈刺世嫉邪賦〉에 나타난 강렬하고 비분강개한 정서는 바로 한말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에서 촉발한 것이다. 이처럼 진실과 거짓이 뒤엎히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서 유가의 “聖君賢相”을 지향하는 정치이념과 윤리도덕은 더 이상 백성의 마음을 추스르고 교화 역할을 담당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중소 지주계층의 지식인들은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고, 물질적 정신적인 곤경으로 말미암아 유가에 대해 가졌던 신념이 회의로 바뀌고, 위정자의 공적과 은덕에 대한 칭송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것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바뀌어 이미 그들의 사상이 변화 발전하는데 필연적인 논리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유가의 구속과 속박을 받은 지식인들은 《五經》을 배척하려는 회의론적 철학 사조가 나날이 활기를 띠어가는 격랑 속에서 마침내 圖讖, 三綱五倫과 詩教 등 유가가 정한 명분과 교훈을 준칙으로 하는 도덕관념이 겹겹이 드리워진 침울하고 진부한 분위기를 타파하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의 소리는 鍾嶸이 “가슴이 저리고 혼백이 감동하여 가히 一字千金이라 할 만하다”³³⁾고 극찬한 〈古詩十九首〉에 가장 뚜렷하게 투영되어 나타난다. 한말에 지어진 이 오언시의 작가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몰락한 지주계층출신이다. 당시 사회 현실의 모습을 넓고 깊이 있게 반영한 “강개하면서도 애달픈 여운이 남는”(慷慨有餘哀) 시편들은 “슬픔과 기쁨으로 느낀 바를 일에 따라 드러낸”³⁴⁾ 한약부민가보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훨씬 성숙했다. 뜻을 이루지 못해 낙담하고 불공평한 현실에 분개한 감정의 발로는 개인의 어쩔 수 없는 운명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지주 계층이라는 한정된 인생관에서 벗어난 진실한 마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주체의식과 개성을 갖춘 서정시는 “자아”라는 容器와 외적사물이 융합해 마

鈞斌”

33) 鍾嶸, 《詩品》, (中華書局, 1981), p.41: “驚心動魂, 可謂幾乎, 一字千金”

34) 《漢書·藝文志》: “感于哀樂, 緣事而發”

음속에서 일으키는 정감과 감회를 통해 당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체험을 만들어냈다. 머나먼 타향에서 유랑하는 자괴감, 출사에 실패한 비참함, 이별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세태염량의 냉정함을 피부로 체험한 몰락한 지식인들의 절실한 심정을 노래한 시편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반향을 완곡하게 감정을 이입해서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이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그 당시 실제적인 사회 정경을 직접 보는 듯한 감동을 준다. 사회가 급격한 대변혁을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지극히 민감한 시인들은 호탕하고 비장한 인생관으로 유교관념에 억눌린 속박을 타파하고 이른바 ‘사람에 대한 자각’의 시대가 도래 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다.

인생이란 무쇠나 바위가 아니니	人生非金石	
어찌 영원한 존재가 되겠는가?	豈能長壽考	〈廻車駕言邁〉

눈 닿는 모두 옛날 경치 없다	所遇無故物	
어이 빨리 늙어 간 것 아닌가?	焉得不速老	〈廻車駕言邁〉

사람의 한 평생은	人生寄一世	
폭풍 속의 먼지로다	奄忽若飈塵	〈今日良宴會〉

백 년을 못 누리는 생명이	生年不滿百	
늘 천 년의 근심을 품는다	常懷千歲憂	〈生年不滿百〉

사람만 하늘과 땅 사이에서	人生天地間	
정처 없이 나도는 나그네 같다	忽如遠行客	〈青青陵上柏〉

만 년을 차례로 장사 지내 왔으니	萬歲更相送	
성현도 건너뛰지 못한 것을!	聖賢莫能度	〈驅車上東門〉

시간은 도도한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흘러가고 아침 이슬이 떠오르는 태양에 금방 말라버리듯 덧없고 짧기 만한 인생에 대한 탄식을 심오하고 처량한 어조로 노래하였다. 이처럼 한말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서정 시인들은 주체의식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어떤 평론가는 그것의 “핵심은 바로 회의론

적 철학 사조아래서 인생에 대한 집착³⁵⁾이라고 하였다. 이런 인생에 대한 집착,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중시는 바로 유한한 삶과 혼란한 사회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도가를 동반한 感傷사상과 회의철학이 표현해낸 삶에 대한 자각인 것이다.

5. 맺는 말

한왕조의 모든 法制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유가신학과 讖緯宿命의 황당한 관념이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을 상실한 후 올바른 사고력과 이성적인 변별력을 갖춘 도가사상만이 필연적으로 '사람에 대한 자각'을 일깨울 수 있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면 시인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애뜻한 서정을 노래한 작품도 없었을 것이다. 유가사상이 가장 흥성했던 반고 때에 오언시는 시적인 정취와 개성이 전혀 없고 "질박하기만 할 뿐 문체도 없었지만(質木無文)", 〈古詩十九首〉는 평이한 언어로 깊은 감정과 내용을 담아 시적 운치와 시인의 개성을 고도로 발휘해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 역량을 확연히 나타내 보였다. 한왕조는 봉건 체제의 억압과 정통 유가의 질곡아래 사람의 자유로운 영감을 속박했을 뿐만 아니라 서정예술의 생명도 질식시켰다. 〈國風〉과 〈離騷〉 이후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서정시는 한왕조의 법제가 와해되고 철학 사조가 새롭게 변화하는 한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에 대한 자각을 일깨웠고 진실한 정감과 애뜻한 서정을 읊은 시풍을 회복하였다. 이런 '사람에 대한 자각'은 위로는 〈國風〉과 〈離騷〉를 추종하고 아래로는 〈古詩十九首〉를 탄생시켰는데 유가 사상의 영향 아래 있던 한대문학으로 말하자면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지만 노장 현학의 영향아래 있던 위진 시가로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곡이고 전주였던 것이다. 위진 이래로 새로운 철학 사조에 깊은 영향을 받은 종영이 〈古詩十九首〉에 대해 것처럼 찬탄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35) 李翹厚, 《美的歷程》,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1), p.128: "核心便是在發疑論哲學思潮下對人生的執着"

〈參考文獻〉

- 班 固,《漢書》,中華書局,1962.
司馬遷,《史記》,中華書局,1982
賈 誼,《新書》,中華書局,1981
林劍鳴,《秦漢史》,上海人民出版社,1989
鍾 嶸,《詩品》,中華書局,1981 .
金春峰,《漢代思想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6
費振剛等,《全漢賦》,北京大學出版社,1993
莊 子,《莊子》,中華書局,1981
王 充,《論衡》,中華書局,1990
何 焯,《義門讀書記》,中華書局,1987
葉 適,《水心別集》,中華書局,1976
萬光治,《漢賦通論》,巴蜀書社,1989
劉永濟,《十四朝文學史要略》,百花文藝出版社,1975
聶石樵,《先秦兩漢文學史稿》,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4
童慶炳,《文體與文體的創造》,雲南人民出版社,1995
游國恩等編,《中國文學史》,人民文學出版社,1984
劉大杰,《中國文學發展史》,上海古籍出版社,1982
《兩漢文學史參考資料》,中華書局,1964
梁啟超,《中國之美文及歷史》,東方出版社,1996
李澤厚,《美的歷程》,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2001
김학주,《한대의 문학과 부》,신아사,2002.

〈中文提要〉

繼戰國文學而揭幕的漢代文學,標誌着中國文學已進入了一個新的發展時代。這個時代,隨着封建專制體制的形成和確立,儒學終於取得了定于一尊的地位,并理所當然地對有又一代的文學生產了巨大的影響。但是,由于漢代經濟上,政治上的種種複雜原因,同時也由于儒家狹隘實用的功利主義哲學經常造成對文學的束縛,損害和破壞,這就使道家思想始終得以作為一種與儒學相補相抗的理論而對這一時代的文學發展產生了同樣不可低估的影響。

有漢代四百餘年, 儒家思想在文學領域中所取得的支配性的影響, 無疑是十分明顯的. 然而, 作為儒學對立補充者的道家思想, 給予漢代文學以影響的事實, 也是昭然在視的. 從數量上來說, 儒家是居于優勢, 不過, 真正在文學史上留下了深刻的影響, 對後世文學表現出持久衝擊力的篇章, 常常不是前者, 而往往是一些與後者的關係更為密切的作品. 不僅從文學創作上來說是如此, 就文學批評上來看也是這樣.

在漢法制搖搖欲墜的漢末, 在儒教神學, 讖緯宿命的荒唐觀念已失去了統治人心的力量之後, 真正思辨的, 理性的道家哲學, 必然會喚醒'人的自覺'. 沒有這種'人的自覺', 就不會有詩人的主體意識和真正抒情的歌唱. 五言詩在儒學思想極為濃厚的班固那裏, 所以那樣"質木無文", 毫無詩思與個性, 而到了<古詩十九首>這裏, 却顯示出了"驚心動魂"的力量, 其原因即在于此. 漢代, 在封建體制的壓迫及正宗儒學的桎梏下, 不僅禁錮了人的心靈, 也窒息了抒情藝術的生命. <國風>, <離騷>以後, 沈寂了多時的抒情詩, 到了漢末這個時代, 終於隨着漢法制的崩解與哲學思潮的變化所喚醒的'人的自覺', 而恢復了情真, 意真的歌唱.

關鍵詞 : 漢代, 儒家, 道家, 漢賦, 王充

이 논문은 2008년 5월 18일에 접수되어 2008년 6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6월 2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